
2012년 서울, 청년구직자들의 초상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한진아 연구원 cycle13@si.re.kr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I. 청년실업의 현주소

II. 서울, 청년구직자들의 초상

III. 한양대 취업지원센터장님이 보는 청년구직자의 초상

IV. 글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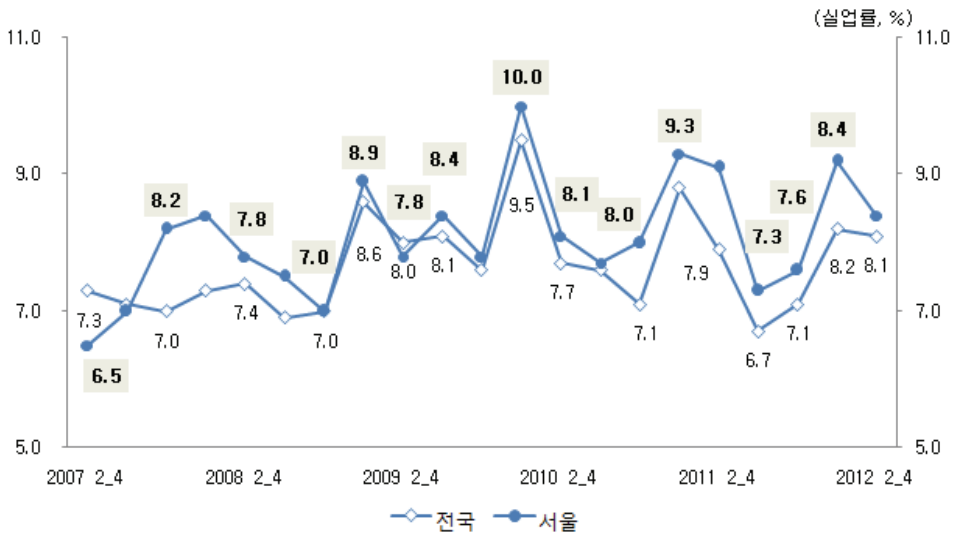
부록. 외국 학생들이 보는 우리나라 청년구직자의 초상

* 본 내용은 서울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서울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청년실업의 현주소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글로벌화는 경쟁시대의 구도를 점점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최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내수 침체, 교역 위축 등으로 이어져 저 성장, 저 고용 추이를 보이며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취업준비생들은 취업대란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버릴 정도로 구직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07년 2/4분기부터 외환위기 시절을 거쳐 현재까지 전국의 청년실업률은 평균 7.7%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는 전국의 청년 실업률보다 더 높은 8.1%로 나타나 청년층의 고용시장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개인과 사회 모두의 사회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림 1] 전국 및 서울의 청년실업률(15~29세)

청년실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며 사회적으로도 경제활동에 기여해야 할 중요한 시기의 인적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재원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대학의 양적·질적 증가에 의한 고학력자 증가로 노동시장이 불균형을 이룬 탓으로 대학졸업생 가운데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2/3만이 취업에 성공하고 나머지 대학 졸업생들은 목표한 곳에 취업하기 위한 취업재수를 하거나 자발적인 실업을 자초하며 노동시장에 청년실업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표 1>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졸업자수(명)	취업률(%)		졸업자수(명)	취업률(%)
울산	6,432	65.8	대전	29,696	59.3
인천	16,045	64.7	광주	24,887	57.7
대구	27,426	62.9	강원	21,124	57.7
경남	25,374	61.0	부산	46,232	57.1
경북	41,182	60.4	충남	38,965	56.8
서울	111,317	59.7	충북	22,831	56.5
전남	19,103	59.6	경기	98,021	56.3
제주	5,340	59.6	전북	25,025	55.5
졸업자수 합		246,879	취업률 평균		58.6

주 : 1) 졸업자 :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년도 2월 졸업자
 2)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3) 대학은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제외한 4년제 일반대학을 말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DB.

특히 서울은 중상위권 대학이 몰려있어 연간 11만명의 졸업자를 배출하는데 비해 취업률은 59.7%로 나타나 교육의 기회가 서울에 비해 열악한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1,000대 기업의 (1000대 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코참비즈) 53%가 서울에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음에도 평균(58.6%)에 근접한 취업률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는 다르게 2011년 고용노동부가 9,72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에 따르면 73.2% 사업장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자가 늘어가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자와 구직자에 따라 한쪽은 구직난을 또 다른 한쪽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에서 다른 지역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기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조사하고, 학교 취업지원센터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취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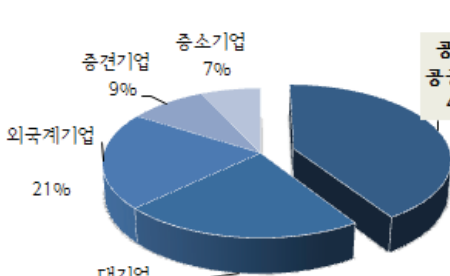
II. 서울, 청년구직자들의 초상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는 15세 이상의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를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한 구직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자 중 일부는 어쩔 수 없는 실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이태백, 삼태백(이삼십대 태반이 백수), 장미족(장기미취업자), 프리터 족 등의 다양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구직자들은 취업시장 공략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며, 그들 중 일부는 왜 자발적 실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서울소재 대학교 3~4학년 취업준비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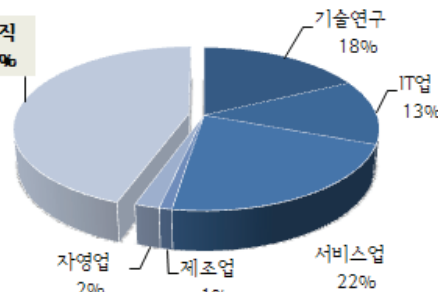
- 조사시기: 7월 중
- 조사방법: 학교,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 응답인원: 대학교 3~4학년의 취업준비생 189명
- 설문내용: <http://research.joongang.com/survey.php?act=m&id=12-9-1189>

1. 구직을 희망하는 분야는 무엇이며, 희망 업종은 어디입니까?

→ 청년구직자들의 41%가 안정적인 공기업-공공기관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44%가 전문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중견 기업으로의 희망을 원하는 학생은 16%로 나타나 공기업, 대기업으로의 취업희망 학생과의 격차 가 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2] 구직 희망 분야



[그림 3] 구직 희망 업종

2.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취업을 준비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1위 관심분야, 2위 임금, 3위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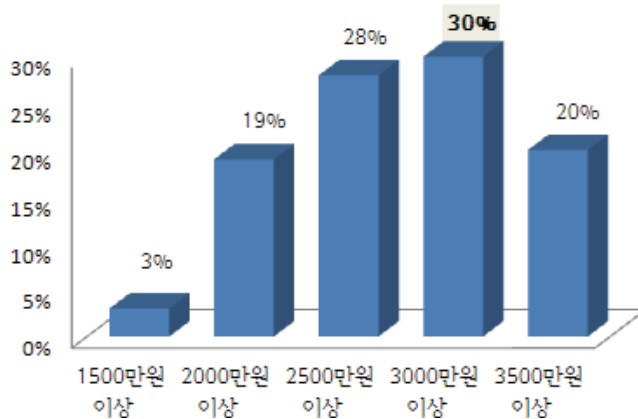
<표 2> 취업난이 생겨난 이유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관심분야	임금	근무환경	복지	안전성	업무량	회사 인지도

주: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그래프.

3. 취업 후 희망하는 신입연봉은 얼마인가요?

→ 취업 후 희망연봉으로는 3천만원 이상이 30%, 3천5백만원이 20%로 과반수가 3천만원대의 연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졸신입 연봉 평균이 2천만원 후반대임을 감안할 때 취업자들의 임금에 대한 기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대졸 희망 신입연봉

청년구직자들의 66%가 안정적인 공기관과 공기업(44%) 그리고 대기업(22%)으로의 **취업을 희망하여 기관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분야와 회사를 선택할 때에는 **관심분야와 임금 그리고 근무환경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취업 후 희망연봉으로 50%가 3천만원 이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봉에 대한 기대치가 대기업 수준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요즘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 취업난이 생겨난 이유는 ‘학력대비 업무조건이 취약’ 하다는 응답이 1위였고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 구인·구직자와의 연결망 부족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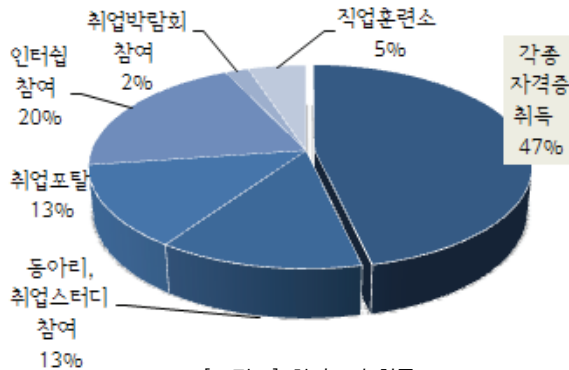
<표 3> 취업난이 생겨난 이유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학력대비 업무조건 취약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구인·구직자 연결망부족	임금부족	일자리 정보 미흡	채용조건에 학력 미달

주: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그래프.

5.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활동을 하고 있나요?

→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는 학생이 47%로 나타났고, 인턴십 참여가 20%, 취업포탈 및 취업스터디가 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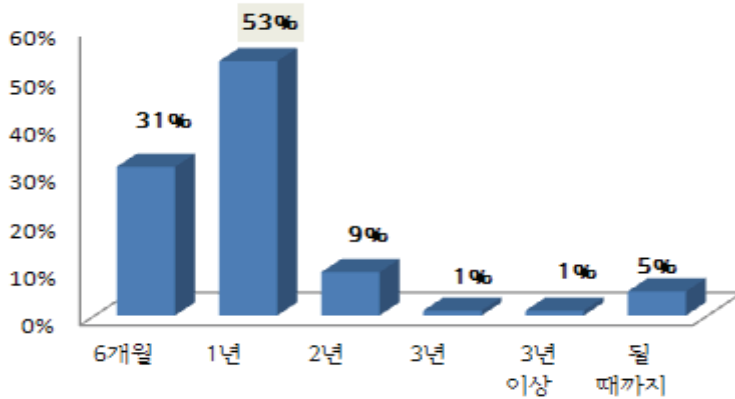


[그림 5] 취업준비 활동

청년구직자들이 생각하는 구직난의 원인은 ‘학력대비 업무조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와 3위로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 ‘구인·구직자간 연결망 부족’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구직난의 주 원인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준비로 ‘자격증 취득’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절반 수준인 20%가 ‘인턴십 참여’라고 대답하여 현장의 경험과 능력보다 자격증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 할 경우 “취업재수” 를 할 의향이 있나요? 있다면 몇 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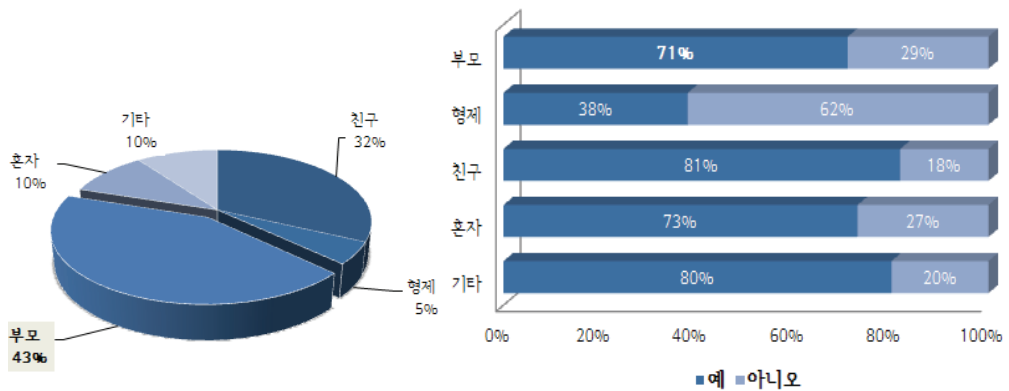
→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 할 경우 6개월~1년간의 취업재수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될 때까지 준비 하겠다는 의견도 5%로 나타났다.



[그림 6] 취업재수의 적정 기간

7. 취업재수를 고려할 때 누구와 논의 할 것 인가요? 취업재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일 것 같나요?

→ 취업재수를 고려할 때는 부모님과 상의 할 것이라는 의견이 43%, 친구 22%로 나타났다. 이에 취업재수를 권장할 것이라고 생각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이 취업재수를 권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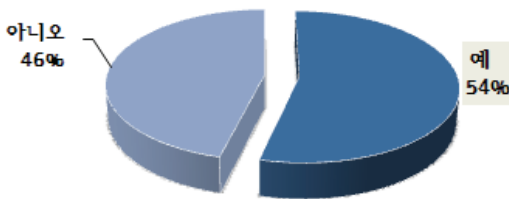
[그림 7] 취업재수에 관한 상의 대상 및 반응

청년구직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재수”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재수 기간으로 6개월~1년간 준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었다. 43%의 학생들은 취업재수를 고려할 때 부모님과 상의 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부모님의 71%가 취업재수를 허락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한 자발적 실업을 선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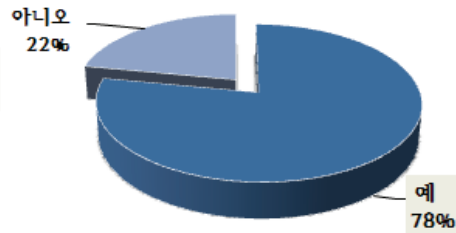
=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에 관해 =

1.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나요?, 목표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나요?

→ 청년구직자들은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예’와 ‘아니오’ 각각 46%, 54%로 응답해 비슷한 응답률을 보인 반면, 목표한 곳에 가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라고 응답한 학생이 7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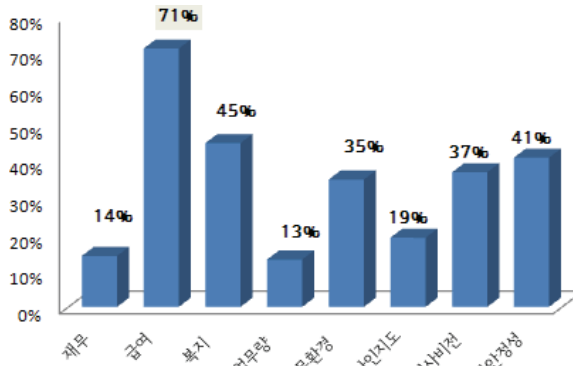
[그림 8] 중소기업 취업 의향



[그림 9] 목표한 곳에 가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의향

2. 중소기업의 어떤 부분이 개선된다면 지원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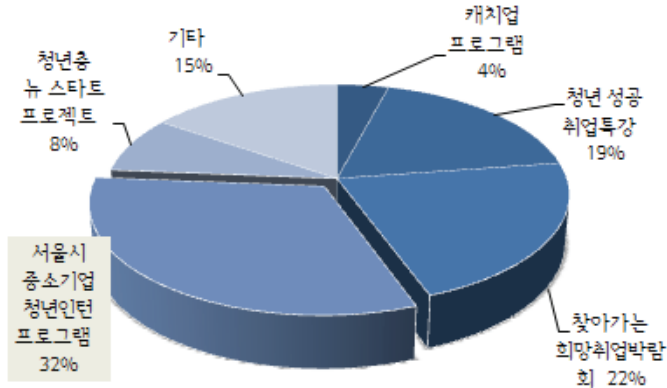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급여조건' (71%)이 개선된다면 지원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밖에 복지(45%), 회사의 안정성(41%), 회사의 비전(37%)이 개선된다면 지원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0] 중소기업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일자리 정책에 관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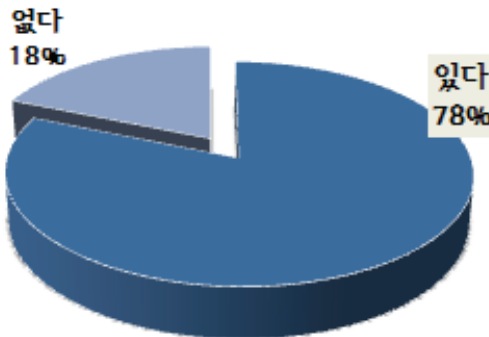
1.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청년취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알고 있는 프로그램에 체크해주세요.



[그림 11] 서울시 청년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

2. 향후 서울시 청년취업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없다면 무엇 때 문인가요?

→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나 가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로 참여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울 것 같다, 관심 분야의 정보를 얻기 힘들 것이다. 실질적이 도움을 못 받을 듯하다. 가파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림 12] 서울시 청년취업 프로그램에 참여의사

III. 한양대 취업지원센터장님이 보는 청년구직자의 초상

청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취업지원센터장님께 청년취업 현황과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1. 한양대 취업지원센터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최기원 센터장:



한양대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취업 교과목 개설을 통한 취업 지원 등이 있으며 참여인원은 보통 한 학기당 600명~700명 정도로 연간 1,4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 대규모의 인원이 단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Q2. 하루에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학생은 얼마나 되며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나요?

▶ 최기원 센터장: 아무래도 상, 하반기 대기업의 공채가 뜰 무렵인 2~3월과 9~10월에 센터 방문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한양대 졸업생의 60% 이상 취업에 성공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학생의 82%가 취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3.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학생의 구성은 어떠한가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기원 센터장: 이공계의 80%가 경제경영학과는 20% 그리고 인문사회계열은 이보다 낮은 숫자가 대기업에 취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학생들은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의 취업을 준비합니다.

Q4. 취업지원센터에 상담 받으러 오는 학생 중 처음부터 중소기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있나요?

▶최기원 센터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신에게 갖는 목표치가 있고 학부모도 자녀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어 처음부터 중소기업을 염두하고 준비하는 학생은 적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취업선호 대상으로 대기업이 우선시되는 인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무조건 눈높이만 높이는 것 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고 즐겁게 업무에 일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직장의 네임밸류와 업무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Q5.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구인자와 구직자를 동시에 가장 많이 접하시는 센터장님 보시기엔 이 모든 것이 일자리 부족만의 문제라고 보시지요?

▶최기원 센터장: 일자리 부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대학 졸업자 및 고학력자 증가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자리는 찾는 사람, 즉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현상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업무를 잘 수행해 줄 사람을 적절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지원 정책이나 제도들도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겠지요. 또한 중견, 중소기업들도 구인난을 호소하기 보다 좋은 인재를 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회사의 뚜렷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Q6.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센터장님께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최기원 센터장:** 우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부터 알고 소위 말하는 스펙과 경험을 쌓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한 **능력-지식-경험,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순히 주변의 시선과 자신의 높은 기대로 대기업으로 혹은 임금이 높은 회사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에 실패하면 그대로 취업재수 기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경험을 쌓고 지식을 늘려간다면 취업재수를 하며 책 속의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IV. 글을 마치며

설문을 위해 방문한 캠퍼스에는 다양한 경험과 호기심을 찾아야할 젊은이들이 취업준비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취업 서적과 보내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취업대란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현실 속에서 직접 체감하는 취업 장벽에 좌절도 하면서 방학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는 마치 대학이 의무교육인 것처럼 대학 졸업자 수는 점점 늘어 취업경쟁은 증가하는데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는 부족하여 실업자도 동반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고학력 취업자를 겨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상당 수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구직난’이 아닌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실업률 증가의 일자리 부족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설문을 통해 만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의 시선, 자신에 대한 기대치, 부모님의 기대 등으로 자신의 위치보다 ‘눈이 높은’ 취업 자리를 희망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취업재수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또래들은 그 시절에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보내기보다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고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해외의 청년들처럼 지금 당장 희망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생각을 바꾼다면, 목표한 것과 달리 조금은 돌아가는 길이겠지만 경험치가 누적된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선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물론 청년 취업자들의 가치관이 바뀐다고 근본적인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기 구제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직업 가치관 정립을 목표로 관련 문화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 또한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는 한편 직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년, 그들은 아직 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릴 수 없는 청년의 시기를 취업공부를 위해 채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 높이가 지금의 조그마한 책상이 아닌 사회로 그리고 세계로 열렸으면...하는 바램이다. **SDI**

부록: 외국 학생들이 보는 우리나라 청년구직자의 초상

소위 말하는 ‘스펙’ 을 쌓고, 목표하는 회사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며 다른 나라의 청년취업생들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졌다.

호기심을 풀기 위해 “서울시 글로벌 인터쉽 프로그램” 에 지원하여 서울연구원에서 한 달간 인턴생활 중인 외국인 유학생 4명을 통해 각국 청년들의 취업준비 과정과 의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일본에서 온 가와노 나츠미(건국대), 루마니아에서 온 룩산드라(이화여대), 중국인 정설교(연세대학교), 프랑스인 보노 크리스토프(서울대학교)가 참여해주었다.

Q1.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구요. 그럴수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취업할 때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토익,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등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의 취업준비방법과 취업준비기간이 궁금합니다.

- ▶ **가와노 나츠미(일본, 건대):** 일본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는 하지만 토익이 필수는 아닙니다. 취업준비는 한국처럼 취업설명회나 면접특강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취업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최대 졸업 후 2년 내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알아요.
- ▶ **룩산드라(루마니아, 이대):** 직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영어공부를 하지만 한국처럼 토익이나 각종 자격증 취득이 취업 조건의 필수사항은 아니예요. 대부분은 지원 분야의 업무수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직무시험과 면접을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 ▶ **정설교(중국, 연대):** 중국에서도 영어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기초적인 부분 정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은 방학동안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4학년때 수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취업준비도 함께 하는 편이에요.
- ▶ **보노 크리스토프(프랑스, 서울대):** 무엇보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학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직업 분야의 현장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취업준비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토익학원, 기출문제지와 같은 취업관련 문제지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 없어서 한국의 토익학원과 관련 서적이 많은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림 13] 서울 글로벌 인턴쉽 참가자(가와노 나츠미(좌), 룩산드라(우))

Q2.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한국은 선생님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일본은 어때요?

- ▶ **가와노 나츠미:**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합니다.
- ▶ **룩산드라:**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급여수준이 좋은 편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국처럼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공무원 시험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 **정설교:** 한국처럼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는 편이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휴학을 하거나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만 몰두하는 경우는 적으며,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직장에 다니면서 준비해요.
- ▶ **보노 크리스토프:**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봐야하지만 한국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이나 문제집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림 14] 서울 글로벌 인턴십 참가자(정설교(좌), 보노 크리스토프(우))

Q3. 한국에서는 때때로 취업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에서 신입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대졸예정자가 되기 위해 휴학을 하거나,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졸업 후 6개월~1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취업 공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취업하기 위해 학교를 쉬거나 졸업 후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 ▶ **가와노 나츠미:** 학교 친구들 중에 휴학을 하거나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학교를 4년 이상 다닌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 신기해요. 일본에서는 학교를 일찍 졸업하는 편이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일부러 휴학하는 경우는 없어요.
- ▶ **룩산드라:** 루마니아에서는 1년 정도 휴학할 수는 있지만 취업 준비를 위해 또는 대기업이 선호하는 대졸예정자가 되기 위해 휴학을 하지는 않아서 좀 특이하게 느꼈어요.
- ▶ **정설교:** 중국은 휴학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취업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편인데 4학년때는 수업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4학년때 취업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 ▶ **보노 크리스토프:** 프랑스는 학교를 늦게 졸업할수록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학교 다닌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할 때 불리합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은 5년 내로 졸업해요.

Q4. 한국에 와서 한국 학생들의 취업준비과정을 보며 느낀 점은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 ▶ **룩산드라:** 취업공부로 힘들어하는 한국 친구를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직업을 갖는 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건데 오히려 취업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 보내느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 ▶ **정설교:**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장래희망에 대해 물으면 어떤 것을 말하던 그 꿈을 독려해주시잖아요? 근데 막상 직업을 갖는 나이가 되면 그 꿈을 반대하시거나 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취업을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의 생각이나 목표는 다 똑같아 보여요. 어린 시절 꿈처럼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 ▶ **보노 크리스토프:** 프랑스는 대학을 졸업하면 이미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해줍니다. 취업 후 1년 정도는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면서 업무 적응도를 지켜봐요. 그러나 한국은 대학에서도 끊임없이 단계별로 배움을 하는 것 같은데 목표가 자아발전이 아닌 취업 준비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인터뷰 내용은 각국의 취업에 관한 보편적인 준비과정을 설명해준 것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응답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있을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참고문헌

-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산학연계시스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00대 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코참비즈
- 2011년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고용노동부